

# 녹두서점의 세 가족이 마주한 80년 5월의 단상



## ‘녹두서점의 오월’

김상운·정현애·김상집 공저  
한겨레출판/1만6천원

“5·18은 우리에게 느닷없이 다가왔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시민군의 거점이자, 전남도청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 있다. 바로 ‘녹두서점’이다. ‘녹두서점’의 가족의 눈으로 본 1980년 5월 광주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나왔다.

최근 출간된 ‘녹두서점의 오월’은 당시 녹두서점을 운영한 서점 가족 눈으로 본 1980년 5월의 이야기다.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녹두서점은 광주 유일의 인문사회과학서점으로 당시 비판적 사상에 목말라했던 시민과 학생들,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길 원했던 야학 노동자들, 반독재를 외치던 대학과 시민사회의 활동가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이야기하

감옥·서점·거리...3인의 시점으로 본 5·18

항쟁 속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 생생히 다뤄



1980년 5월 시민군들이 거리로 나와 항쟁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책 ‘녹두서점의 오월’ 중

고 지적 무기를 단련할 수 있는 장소였다.

서점은 당시 금서로 지정된 인문사회과학서적을 제공하며 대학가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지적 수원지 역할을 했다. 유신정권 반대를 외치다 전남대에서 제적당한 뒤 녹두서점을 차린 김상운, 남편을 도와 서점 살림을 도맡은 중학교 교사 정현애, 그리고 1980년 5월, 33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김상운의 남동생 김상집이 1980년 오월 광주를 이곳에 불러낸다.

이 책은 녹두서점의 세 가족이 각각 각

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경험한 5·18항쟁의 이야기다. 녹두서점의 세 가족은 김상운(김상운), 서점(정현애), 거리(김상집)라는 각기 다른 공간에서 자신들이 겪은 5·18항쟁 열흘간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며 항쟁의 전 과정과 에피소드, 그 속에 담긴 항쟁 지도부와 기증민들의 얼굴을 생생하게 그려나간다.

이 책은 평범했던 시민들이 어떻게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항쟁에 나서게 됐는지 보여준다.

전두환 쿠데타 세력의 기습적인 검거작

전에 의해 항쟁을 지도할 인사들이 대부분 검거되거나 도피한 상황이었다. 녹두서점에 모인 사람들이 가까스로 지도부 역할을 대신하고는 있었지만, 5월21일 계엄군이 광주 시내로 대거 투입되고 시민에게 집단 발포 했다는 소식까지 들리자 이들도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피신을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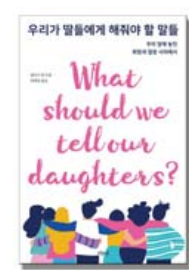
그런데 정현애와 김상집이 피신하는 도중 목격한 것은 투쟁을 외치며 도청 쪽으로 향하는 총을 든 시민군들이었다. 운동권들의 예상을 뒤엎고 시민들이 흩어지지 않고 저항을 결의한 것이다.

책 곳곳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의 다양한 얼굴들이 등장한다. 부패하는 시신의 악취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죽은 자들을 돌보는 사람들, 최루탄으로 고통받는 시위대를 위해 대야에 물을 길러오는 유흥업소 여성들, 학생들을 향한 계엄군의 무차별적 폭력에 참지 못하고 항의하는 노인들 등 항쟁 속 시민들 하나하나의 모습을 생생히 재현한다.

소설가 황석영씨는 “녹두서점의 가족들이 피와 눈물로 얼룩진 ‘광주 5월’의 기억을 다시 불러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평화로운 삶을 소망하던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투쟁에 나서게 됐는지 소상히 밝혀주는 기록이자, 5·18항쟁을 이해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라며 “이들 가족이 겪었던 시대의 깊은 상흔도 이 글을 기록함으로써 치유되기를 진정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겨울 기자

## 새로 나온 책



▲ 우리가 딸들에게 해줘야 할 말들 = 멜리사 벤 지음. 정혜영 옮김

저자는 두 딸을 둔 엄마이자 저널리스트, 작가, 활동가다. 영국의 좌파정치인 토니 벤과 교육운동가 캐롤라인 벤의 딸이기도 하다. 저자는 우리의 딸과 후배 여성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며, 어떤 문제들이 그들 앞에 놓였는지, 서로가 연대의 방법은 없는지 등을

고민하며 다양한 인터뷰와 통계 수치 등을 보여준다. 책을 통해 만나는 여성은 주로 영국사회 구성원들이지만 동시대 한국사회를 사는 여성들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월의봄·2만4천원.



▲ 모든 권력은 간신을 원한다 = 이성주 지음.

“나라를 망치는 데에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송사(宋史)’에서 유래된 격언이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암군(暗君) 뒤에서 국가를 쇠망으로 이끌었던 간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저자는 “왜 간신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며 역사속하고 오래된 질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간신들이 조직에서 어떤 쓸모를 인정받았기에 역사에서 사라질 수 없었다고 결론짓는다.

이번 책은 이 같은 가설을 바탕으로 조선 건국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간신들의 역사를 살펴봄과 권력과 조직의 속성을 파헤친다. 계유정난의 한명회, 경술국치의 이완용 등 9명이 그 대상이다. /추수밭·1만5천원.



▲ 엄마 심리 수업 = 유우상 지음.

30년 경력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저자가 엄마가 꼭 알아야 할 숨겨진 심리를 자녀 교육 철학과 함께 제시했다. 그간의 상담과 치유 경험에 자신의 생각과 소신을 추가해 집필 6년 만에 출간한 것.

아이를 위해 애쓰는 엄마, 그 밑에서 병들어가든 아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바로 엄마의 무의식 때문이다. 정신분석적으로 엄마의 사랑을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불안과 욕망, 죄책감, 열등감이 숨어 있다. 어두운 엄마의 무의식이 사랑이라는 포장지에 싸여 아이에게 전달되고, 아이는 포장지에 든 독을 먹는다는 얘기가.

이 책은 엄마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갖는 다양한 감정과 심리적 기제, 즉 불안, 죄책감, 열등감, 상처, 의심, 분노 등이 평소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준다. /심플라이프·1만4천원.



▲ 살을 위한 죽음의 미학 = 이창복 지음.

독일 소설가 장 파울은 말했다. “모든 인간에게 태어난 순간 하나의 화살이 쏘아진다. 그 화살은 날고 또 날아서 죽음의 순간에 이른다.” 즉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죽음과 만난다는 얘기가.

살 없이 죽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 없는 삶 또한 없다. 인간은 죽어가면서 삶을 새롭게 발견한다. 죽음이 인간의 삶을 성숙하게 만든다면, 인간의 삶은 죽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 삶의 성숙은 곧 죽음의 성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독일 문학자이 이창복 한국외국어대 독일어과 명예교수는 불가사의하지만 매력적인 죽음을 노래한 불멸의 명작을 찾아서 인생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했다. 철학, 역사, 종교, 심리, 예술을 넘나들며 죽음의 본질을 통합적으로 탐구하고 심리적 해석을 시도한 것이다. /김영사·3만3천원.

## 수필가 조영환씨 ‘공중의 새를 보라 I, II’ 출간

요즘 국내·외 뉴스 이슈는 무엇일까? 나라 밖에서는 핵, 무역, 테러 등 각종의 이익을 위해, 국내에서는 사사건건 시비와 논쟁으로 정치, 사회, 경제, 교육에 이르기까지 요즘에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쓰면서 섬뜩한 폭언으로 국내는 운동 시끄럽다.

수필가 조영환은 이러한 것들의 요인은 전부 다 ‘이기심’에서 나온다고 말문을 열어간다. 다뤄서 이익될 것 없고 해결하지 못할 것들을 예측하면서 우리 사회는 큰 소리를 일단 질러댄다. 그 큰소리로 다툼과 거칠어진 논쟁을 보면, 좁은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맛이 씁쓸하다.

인류 정신사에서 오늘날까지 인류가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이타심이 있었다.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행동할 때에 인간은 지금까지 도약해왔다. 그 노력의 역사가 지금까지 ‘인간의 위대한 여정’을 이어가고



‘공중의 새를 보라 I, II’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 인간의 위대한 여정을 깨는 것은 이기적인 생활이다. 계속되는 삶 속에서 나타난다. 공동체에서 인간다운 삶이란, 타인과 대결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결에서 서서히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 두 권의 책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질문에 그 답을 두 권의 책 속에서 살아가는 대안이 들어있다고 말한다.

작가는 “결국 우리 안에 잠재된 이타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특히 오늘날 온통 이기주의로 점철된 사회에서 인간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사는 삶이 인간”이라고 말한다.

특히 작가는 “위 제목 ‘공중의 새를 보라’의 I, II권의 140편의 논제들은 공동체에서 올곧은 삶에 비타민 같은 영양제를 계속 공급해 주는 인문학으로 이타심을 훈련시켜 삶의 고통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수필가 조영환은 2016년 ‘광야에서 인연’, 2018년 ‘건널 수 없는 강’ 출간에 이어 지난달 1일 ‘공중의 새를 보라 I, II’를 출간했다.

/정겨울 기자

## 한강 소설 ‘사랑하는 아들에게’

95년뒤 노르웨이서 출판

노르웨이 공공예술단체 ‘미래도서관’으로부터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소설가 한강(사진)이 25일(현지시간) 한 세기 뒤에 출간할 미공개 소설 원고를 재단 측에 전달했다.

지난 2014년 시작한 미래도서관 사업은 100년간 매년 1명씩 작가 100명의 미공개 작품을 노르웨이 오슬로 외곽 숲에 100년간 심어둔 나무 1천 그루를 사용해 오는 214년 출간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다. 한강은 다섯 번째 참여 작가로 기록됐고, 아시아 작가로는 처음이다. 한강은 이날 원고 전달식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흰 천으로 미공개 ‘한글 원고’를 싸맨 뒤 ‘미래도서관 프로젝트’를 만든 스코틀랜드 예술가 케이트 패터슨에게 넘기고 제목을 발표하는 의식을 가졌다. 이날 한강이 공개한 소설 제목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분량과 내용 등은 모두 비밀로 한 채 원고가 봉인돼 오슬로 도서관에 보관된다.

/연합뉴스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 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 야외 결혼식
- ▶ 칠순잔치
- ▶ 체육대회
- ▶ 야유회

☐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

# 60플라워

Flower

축화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